

## 문화예술교육의 이해를 돕는 친절한 길잡이

김 주 희\*

「이론과 현장이 살아 있는 문화예술교육」, 김은영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예술전공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개념이 아니다. 창조적 사고 능력을 배양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주는 사회적 대안 교육으로 문화예술교육은 확장되고 있다. 이는 예술을 활용한 교육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넓은 교육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은 다소 그 범위와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현장과 이론이 실제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자료가 미비한 상황이다.

문화예술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저자는 「이론과 현장이 살아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이론과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지형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교육자나 학습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심화학습의 내용 또한 담고 있으며, 각 챕터의 주제와 관련된 토론문제를 제시하고 있어 전공 교수자나 그룹 스터디의 수업교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학로의 연극기획자로 문화예술계에 처음 발을 들인 후 국립극장 기획팀, 국립무용단의 행정실장, 세종문화회관의 문화매개자 양성과정 강사를 맡아 예술과 교육, 기획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녀의 다양한 경험은 사회문화예술의 통합교육과 인력 양성 등의 실천적인 영역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문화예술 수업을 관찰하면서 경험과 교육철학이 부족한 예술 강사들의 수업을 보는 것 만큼 예술교육의 가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일도 없으며, 행정과 무관심의 벽에 가로막혀 문화예술교육의 생생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다”고 책에서 토로한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문화예술교육은 참으로 섬세한 교육이 아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강사의 경험과 능력 외에도 효율적인 정책의 지원과 참여자들의 인식 재고가 함께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론과 현장이 살아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기본개념과 이론을 두루 살피고, 정책, 현장 상황, 맥락, 사례, 쟁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특히 현실에서 겪는 구조적 문제, 이를 이겨낼 수 있

\* 성균관대학교 박사, sunjang33@gmail.com

는 예술행정가와 예술강사의 철학,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다양한 확장 가능성, 그리고 문화예술교육단체의 현실과 고민을 그 동안 저자가 예술교육현장에서 몸담아 일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전체적인 구성은 총 6부로, 1부 문화교육·예술교육의 이해, 2부 문화예술교육의 시선들, 3부 문화예술교육의 영역, 4부 문화예술교육 정책, 5부 문화예술교육의 현재, 6부 문화예술교육 기획이라는 내용과 함께 각 장마다 심화학습을 위한 읽을거리에 대한 정보와 토론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1부 문화교육·예술교육의 이해에서는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현장 소개에 앞서 영국의 대표적인 문화이론가인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를 비롯해 M. 아널드(M. Arnold), 앨프리드 L. 크로버(Alfred L. Kroeber)이 언급하는 문화에 대한 정의와 W. 타타르키비츠(Tatarkiewicz), 마거릿 P. 배틴(Margaret, P. Battin) 등의 학자가 말하는 예술에 대한 개념과 범주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다. 저자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특징 및 영역 그리고 국내에서 바라보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시선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부 문화예술교육의 시선들에서는 예술교육을 전달하는 교수자의 상이한 입장 즉 문화예술교육을 주로 전달하는 예술가와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각각의 예술교육 방식과 관련이론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술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경향성을 말함으로써 미래학문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부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에 치중되어 있는 국내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된 경기도 양평의 조현 초등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 2000년대부터 정부주도 아래 추진되어져 온 소규모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예술꽃씨앗학교’에 선정된 학교들의 운영현황과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서울창의예술학교’, 전통연희를 기반으로 한 연극놀이 프로그램 ‘연극놀이터 해마루’ 등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El Sistema)’와 같은 해외의 문화예술교육의 성공사례들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사회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특수성을 살려 성공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문화소의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문화학교 프로그램이었던 ‘자바르페’,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문시장 문전성시’를 소개함으로써 순수 국내 창작예술 프로그램의 성과를 알려주고 있다.

4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는 해외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프랑스와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자유방임 방식의 미국, 정부와 민간의 중간적 지점에 있는 영국의 문화예술정책과 동향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경향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과정의 현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

5부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에서는 국내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현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열악한 예술강사의 임금과 지위, 처우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지니고 있는 쟁점으로 자격증의 효용성과 자격증 양성과정 및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지위를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예술교육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

6부 문화예술교육 기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인접의 개념들을 함께 알아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정의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전문 인력이 맡는 역할과 기본적인 기획의 요소를 알려주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기획과 관련한 전공 혹은 직업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친절한 길잡이를 해주고 있다.

‘이론’과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해설서이자 입문서인 「이론과 현장이 살아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강사를 하려는 젊은 예술인, 문화예술교육 기획에 관심있는 매개인력, 그리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종사자, 관련 학문 연구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하려는 입문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